

“쉽지 않네”...류현진·김광현, 세 번째 동반승리 도전도 실패

류현진, 필라델피아전 6이닝 2실점으로 패전

김광현, 피츠버그전 5.1이닝 동안 4실점 흔들

동반 승리의 길이 쉽지 않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0일(한국시간) 나란히 선발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누구도 웃지 못했다. 류현진은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6피안타 8탈삼진 1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퀄리티 스타트(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하며 잘 던졌지만, 팀이 1-3으로 지며 패전을 떠안았다. 4회까지 안타 1개만 허용하며 무실점 투구를 펼쳤던 류현진은 집중타를 허용한 5회가 아쉬웠다. 1-0으로 앞선 5회말 선두 제이 브루스에게 좌측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맞으며 출발했다. 후속 스콧 김어리의 번트로 1사 3루가 연결됐고, 앤드류 넵과 애덤 헤이스러, 앤드류 매켄, 브라이스 하퍼에 연거푸 안타를 허용했다. 순식간에 1-2로 역전을 당하고, 1사 만루 위기까지 몰렸다. 그러나 만루에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타선의 도움은 없었다. 2안타 빈공에 그친 토론토는 추가점을 뽑아내지 못하고 1-3 패배

를 당하며 6연패 수렁에 빠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5.1이닝 6피안타(2홈런) 1볼넷 4탈삼진 4실점으로 고전했다.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김광현은 앞서 4차례 선발 등판에서 24이닝 연속 비자책 행진을 벌이며 잔물투를 펼쳤지만, 이날은 피츠버그 타선을 막지 못했다. 1회부터 키브라이언 헤이스에게 홈런을 맞으며 출발했다. 스트라이크를 연달아 꽂아넣으며 볼카운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높게 들어간 3구째 90.2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 당했다. 0-1로 뒤진 3회 1사 후에는 호세 오수나에게 추가 홈런을 내줬다. 이번에는 풀카운트에서 던진 7구째 커브가 왼쪽 담장을 넘어갔다. 0-2로 끌려가던 6회말 위기를 넘지 못했다. 김광현은 선두 헤이스와 에릭 곤잘레스, 폴린 모란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추가 실점했다. 조쉬 벨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김광현은 1사 1, 3루에서 제이크 우드포드와 교체됐다. 우드포드가 제이콥 스타링스에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허용, 김광현의 책임 주자인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김광현의 실점은 '4로 늘었다.

류현진과 김광현이 동반 선발 출격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 동반 선발 등판에서도 함께 승리를 따내진 못했다. 지난달 18일 김광현이 선발로 보직 이동하면서 류현진과 동반 선발 출격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2007년 4월16일 콜로라도 로키스 김병현(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탬파베이 레이스 서재응(미네소타 트윈스전) 이후 13년 만에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투수가 같은 날 선발 등판이 이뤄지게 됐다.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던 김광현은 이날 시카고 컵스전에서 첫 선발 등판했다. 3.1이닝 3피안타(1홈런) 1실점을 기록하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줬었다. 류현진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패투를 펼쳤다. 압도적인 구위를 선보인 류현진은 토론토가 7-2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수확했다. 닷새 후인 지난달 23일에도 둘은 나란히 마운드에서 '슈퍼 코리아인 데이'를 만들었다. 김광현은 신시네티 레츠전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3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호투했다. 홈 잡을 데 없는 투구로 팀의 3-0 승리를 이끈 김광현은 빅리그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류현진은 탬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 5이닝을 3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볼넷은 하나도 없었고, 삼진은 6개를 빼앗았다. 다만 이날 토론토가 1-2로 저 류현진이 승수를 추가하지 못해 동반 승리는 불발됐다. 한국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날



승리를 거둔 건 15년 전이 마지막이다. 2005년 8월2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박찬호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5이닝 5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승리를 따냈다. 뉴욕 메츠 소속이던 서재응은 같은 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7이닝 7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뉴스시



여자팀 추월 2000m에 출전한 여주시청 롤러팀

여주시청 롤러팀, 회장배 롤러대회 3개 메달 획득 '쾌거'

금·은·동 메달 하나씩... “올해 첫 대회서 좋은 성적 거둬 기뻐”

여주시청 롤러팀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제천 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회장배전국학교및실업팀대항롤러스포츠대회에서 3개의 메달(금1·은1·동1)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서 여자팀(서소희, 이해원, 문지윤, 심수정)이 팀 추월 2,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문지윤은 여자 5,000m에서 은메달을, 김연주는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롤러대회가 개최되어 선수들의 실전 경험 부족으로 우려가 많았으나 좋은 성적을 거두어 매우 기쁘다”면서 “여주시 소속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주FC, 강등 걱정 없는 파이널A '막차'

6위로 기적같은 역전 일궈

올해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로 승격할 광주FC가 강등 걱정 없는 파이널 라운드 그룹 A(1-6위)에 막차로 합류했다. 광주는 20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성남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22라운드에서 펠리페, 두현석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광주는 6승(7무9패 승점 25)째를 신고하며 6위로 파이널 라운드 그룹A에 턱걸이로 안착했다. 기적 같은 역전이다. 22라운드 전까지 8위에 머물러 파이널 라운드 그룹B(7-12위)로 향할 것으로 보였지만 값진 승리로 강원FC, FC서울을 따돌렸다. 이날 강원과 서울은 중요한 일전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광주는 0-0으로 팽팽하던 전반 12분 펠리페의 선제골로 균형을 깬 뒤, 후반 28분 두현석의 썬더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광원은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김지현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1-2로 역전패했다. 광주에 기적 같은 22라운드였다면 강원에는 악몽이었다. 결국 파이널 라운드 그룹B로 밀려났다. 광원은 6승6무10패(승점 24)로 6위로 8위로 내려갔다. 광원은 0-0으로 팽팽한 후반 7분 코너리 세트피스에서 김지현이 채광훈의 크로스를 정확히 헤더로 연결해 수원의 골네트를 갈았다. 그러나 수원은 포기하지 않고, 고승범과 한석중의 연속골로 전세를 뒤집었다. 박건하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수원은 2연패에서 탈출했다. 박 감독은 부임 후 2



프로축구 광주FC 박건하 감독

번째 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수원(6승6무11패 승점 21)은 최하위 인천(승점 18)과의 승점 차를 3으로 벌렸다. 역시 그룹A 가능성이 있었던 서울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전에서 0-0으로 비겨 그룹A 진입에 실패했다. 7승4무11패(승점 25)로 6위 광주와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7위에 자리했다. 광주가 28골, 서울이 19골을 넣었다.

고흥고 3학년 신록, 전국역도대회 '한국新' 우승

남자 고등부 61kg급 인상 128kg·용상 163kg 합계 290kg 기록

전남 고흥고등학교 3학년 신록이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전국역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고흥고 역도부 신록이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0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20일 밝혔다. 신록은 이번 대회에서 인상종목 127kg, 용상 163kg, 합계 290kg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기존의 용상 162kg보다 1kg 더 들어 올렸으며 인상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 학생기록 종전 125kg보다 2kg경신했다. 합계 290kg의 기록은 자신이 지난달에 달성한 한국 주니어기록 283kg보다 7kg나 앞선 신기록이다. 이와함께 신록과 같은 체급에 출전한 전남 체고 정현묵도 인상 105kg, 용상 137kg, 합계 242kg으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신록의 고교생 한국신기록은 88서울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전병



전남도체육회는 고흥고등학교 역도부 신록이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0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관이 전주고 시절 세운 기록 후 처음인 것 같다”며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도 고교시절 세우지 못한 대기록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정성운기자

프로농구 LG 조성원 감독, 데뷔전 승리

명장 유재학 감독 상대 첫 승

프로농구 창원 LG가 2020 MG새마을금고 KBL 컵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새 시즌 신바람을 예고했다. 신임 조성원 감독은 공식 데뷔전에서 명장 유재학 감독을 상대로 웃었다. LG는 20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컵대회 A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빠른 공격 농구를 앞세워 99-93으로 승리했다. 조 감독은 프로 지도자로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약속했던 경기당 100점에 육박하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보였다. LG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현주엽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고, 새롭게 조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조 감독은 1997년 프로에 입단해 2006년까지 10년 동안 뛰었다. 그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LG 유니폼을 입었다. 2000~2001시즌 평균 100점대의 공격 농구를 선보인 LG의 중심이었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3점슛과 점퍼가 장기로 '깡개



루 슈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은퇴 후,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에서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조 신임 감독은 2008년 감독으로 승격했고, 이후에는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명지대 감독을 맡다가 이번에 감독직으로 친정에 돌아온 것이다. LG 선수들은 적극적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달라진 면모를 과시했다. 주축 들고, 어두웠던 지난 시즌 벤치 분위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